

# 運氣學과 四象體質醫學을 통한 人間體質에 대한 考察

都永敏 · 尹暢烈\*

## 中文抄錄

### 通過運氣學和四象體質醫學對人體本質的考察

都永敏,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1. 五運六氣學根于黃帝內經素問的運氣篇. 五運六氣學由木火土金水五運和風寒暑濕燥火六氣構成. 對傷寒論, 金元四大家醫論, 直至東醫寶鑑, 在診斷和治療人體疾病方面, 作為核心原理所被應用. 僅用五運六氣學說形成醫學理論的學派有朝鮮時代尹東里先生的草窓訣, 日帝時代趙元熙先生的五運六氣醫學寶鑑等.
2. 運氣學的有限性在于把天地自然的普遍變化原理適用於人體, 使其一般化, 而疏忽了人間自身體質的特性.
3. 四象醫學是19世紀末李濟馬先生所創, 并通過東醫壽世保元發表于世的體質醫學. 李濟馬先生的東醫壽世保元的內容為人體具有固有的體質特性和性情的差異, 因此, 應根據這些來診斷和治療疾病. 從飲食到養生, 以體質來分類. 根據個人的體質來調節相應的獨特的理論體系.
4. 以前內經的運氣學以天地自然的原理為中心來掌握人體, 而疏忽了人體自身為主體的原理, 因此具有一定的有限性. 李濟馬先生的東醫壽世保元也一樣, 以人體為中心的原理來掌握人體而疏忽了天地自然的變化原理. 即, 四象醫學的問題在于重視人體自身的體質特性, 而疏忽了天地自然的變化原理.
5. 五運六氣學是研究天地原理的理論體系, 四象醫學是以人體為主, 來研究人體的體質醫學. 因此, 根據天地人相應的原理, 以五運六氣掌握天地的狀態, 用四象醫學來掌握人體自身的特性, 把這兩者相互融合, 就會體現出明顯的人的形象. 所以, 根據天地人相應的原理, 韓醫學的基本原理可以通過以天地自然為原理的五運六氣學和以人體為原理的四象醫學的研究, 應綜合天地人原理, 將其適用於韓醫學.
6. 五運六氣和四象醫學對人體的定義, 期待以後有更多角度的研究.

## I. 緒 論

人間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생성되었고, 왜 병들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인류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醫學의 명제임에 틀림없다. 韓醫學에서는 人間과 天地萬物の 관계

를 수 천년 전의 黃帝內經에서부터 최근의 東醫壽世保元に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궁구하고 있다.

運氣學의 原理로 본다면 萬物은 天地의 氣運을 받아 化生된 存在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天元紀大論에 “在天爲氣, 在地成形, 形氣相感而化生萬物矣”<sup>1)</sup> 라고 표현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1) 배병철. 今釋 黃帝內經 素問. 서울. 성보사. 1994. p 527

天地의 變化는 五運六氣에 따라서 형성되어지니 “夫五運陰陽者是 天地之道也요 萬物之綱紀요, 變化之父母요, 生殺之本始요, 神明之府也이니 可不通乎니라.”<sup>2)</sup>라고 運氣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참으로 五運六氣는 宇宙와 自然 그리고 人間의 本質과 生成, 變化의 原理를 주관하는 근본적인 원리이며 韓醫學을 이루는 이론적인 요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內經에 이르기를 “醫者 當識天地間運氣”<sup>3)</sup>라 하였다.

五運六氣學은 木火土金水の 五運과 風寒暑濕燥火의 六氣로서 한의학의 전반에 이론적인 바탕이 되고 있으며 傷寒論이나 金元四大家의 醫論뿐만 아니라 東醫寶鑑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핵심적인 원리로 응용되고 있다. 또한, 五運六氣學만을 이용해서 의학적인 이론을 형성한 분과도 있으니 이는 陳無擇<sup>4)</sup>의 三因方에서 비롯된 운기처방의 형태로 이 후 조선시대에 尹東里<sup>5)</sup> 선생의 草窓訣, 일제시대에 趙元熙 선생의 五運六氣醫學寶鑑<sup>6)</sup>등을 통해 발전한 運氣醫學의 한 형태이다.

하지만, 人間을 궁구함에 있어 內經의 五運六氣學을 배제하여 독창적인 醫論을 펼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李濟馬<sup>7)</sup> 先生이다. 조선말기에 이르러 저술된 東醫壽世保元에서 李濟馬 先生은 “五行사상을 지양하고 四象의 개념에 입각하여 장부성리에 대소, 허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四象醫學을 성

립하였다.”<sup>8)</sup>

이는 人間에게 고유한 四象體質의 特性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존의 五運六氣를 바탕으로 한 人間의 臟腑原理와는 다른 각도에서 의학적인 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四象醫學은 人間의 性情을 중심으로 인체의 특성을 궁구하여 臟腑의 大小로서 人間의 체질을 구분하고 있다. “人東臟理에 有四不同이니 肺大肝小者를 名曰 太陽人이오 肝大肺小者를 名曰 太陰人이오 脾大腎小者를 名曰 少陽人이오 腎大脾小者를 名曰 少陰人이니라.”<sup>9)</sup> 이러한 관점은 그 기준이 人間에 있는 것이지 天地自然에 있다고 확대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四象醫學은 철저히 人間中心에서 의학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수 천년의 의사학적 가치를 지닌 內經의 五運六氣學과 조선말기에 태동한 四象醫學이 현재의 한 의학의 큰 줄기로 자리 잡은 지 어언 100여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五運六氣學과 四象醫學은 相互醫學的인 原理가 융화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리하여 筆者는 韓醫學의 基本的인 理論인 黃帝內經의 陰陽五行六氣學과 東醫壽世保元의 四象醫學의 體系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 한의학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한의학계 내에서도 人間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五臟六腑의 生理, 病理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으며, 각기 學派의 편협되고 일방적인 주장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五運六氣學과 四象醫學의 근본적인 원리를 궁구하기에 이르렀다.

한 個人은 그 父母로부터 遺傳의 特性을 지닌 生命을 부여받으며, 人間이 生命을 유지하는 근원은 天地自然에서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의 전체적인 本質을 궁구하기 위해서는 天地萬物의 生成과 變化原理인 五運六氣와 生命을 지닌 人間自體의 體質의 特性이라는 두 가지 원리로 파악되어질 때 보다 완전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즉, 五運六氣는 天地自然의 變化原理이고, 四

2) 배병철. 上揭書. p527

3) 김완희 등. 漢醫學原論, 서울. 성보사. 1982. p47

4) 南宋의 醫家. 靑田人. 그는 복잡한 질병을 病源에 따라 外因六淫, 內因七情 및 不內外因 세종류로 분류하였는데 각 類마다 논술과 方이 있으며 천여개의 醫方을 모아 淳熙 원년(1174년)에 “三因極一病證方論”<sup>6)</sup>권을 저술하였다.

5) 尹東里의 子는 子美이고 號는 草窓이다. 1705년에 출생하여 1784년 80세에 죽은 조선시대의 醫家였다.

6) 趙元熙. 五運六氣醫學寶鑑. 남해. 남선약업주식회사. 1938.

7) 李濟馬; 1838 - 1900年. 朝鮮의 醫家. 字는 務平, 號는 東武. 진해 및 고원현감을 역임하였다.(중략) 四象醫學은 종래의 음양오행의 哲學的 空論을 배척하고 임상적인 방법에 따라 환자의 체질을 중심으로 치료 방법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저서로는 東醫壽世保元 上下 2권과 格致藥가 있다.

8) 홍순용. 四象診療保元. 서울. 서원당. 1991. p.29.

9)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8.

象醫學은 人間自體의 變化原理를 말한 것이므로 이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天地人 相應에 따른 人間의 온전한 정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本論에서는 五運六氣에 대한 기본적인 原理와 四象醫學의 기본적인 原理를 파악하고 五運六氣의 問題點과 四象醫學의 問題點을 지적하면서 두 理論體系의 本質과 限界性을 파악하여 이를 융화할 天地人相應의 본질적인 원리를 궁구하는 것이다. 五運六氣와 四象醫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天地人의 원리를 정연히 설명할 수 있는 성현들의 고귀한 학문적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天地와 人間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이 통탄할 일이라 생각되어 현명한 이들의 연구에 기대를 걸어본다. 아직도 理論에 집착하여 人間의 本質에 대한 전체적인 원리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筆者의 연구를 발표한다.

## II. 本 論

### 1. 五運六氣學

運氣學의 원류는 黃帝內經 運氣篇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黃帝內經의 運氣篇은 五運六氣에 대한 상세한 정리와 五運六氣가 天地萬物에 미치는 영향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人體의 變化와 疾病에 대한 내용도 설명되어져 있다. 後代의 다양한 學派의 醫論은 內經을 바탕으로 그 活用을 달리고 있을 뿐, 그 뿌리는 변함없이 內經을 근본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運氣學이란 天地의 變化와 宇宙生成의 原理인 陰陽 五行 六氣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人體의 生成과 變化에 미치는 영향을 主運, 客運, 主氣, 客氣에 따른 변화를 궁구하는 것이다.

이는 自然界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氣候變化에 따르는 生命體들의 다양한 變化의 양상들을 궁구하여 이를 人體에 응용하여 生理的 特性뿐만 아니라 病理的 特性을 파악하고 疾病에 대한 治療原理를 제시하는 韓醫學의 가장 基本的인 原則인 것이다. 그러므로 運氣學說은 天人相應의 원론에 기초를 두고 十干, 十二支를 運用하여 기후 및 天氣가 인간

의 健康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生理 病理 診斷 豫防 治療등의 각 방면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醫學氣象理論을 구체화한 것이다.<sup>10)</sup>

#### 1) 五運六氣란 무엇인가?

五運이란 木, 火, 土, 金, 水運의 總稱을 말하고 六氣란 風 寒 暑 濕 燥 火의 總稱<sup>11)</sup>을 가리키는 것이다. 五運이라하는 것은 五行法則이 變化함으로써 이루어지는 統一體의 變化法則과 象을 말하는 것이다.<sup>12)</sup> 이를 자세히 언급하면, 五行이라는 것은 自然自體의 基本法則을 말하는 것이요, 五運이라는 것은 五行이 實現하는 自律現象의 變化自體의 法則과 象을 말하는 것<sup>13)</sup>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六氣라는 것은 地球의 運動過程에서 五行의 質이 變化를 일으켜서 運行之氣가 하나 더 불어나게 됨으로써 六種의 氣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五運의 氣化作用이 地球周圍에 集中하게 되면 地球에서는 이것이 六氣로 變化하는 것인데, 六氣란 五運에 相火가 하나 더 불어나게 되어서 성립되는 것이다.<sup>14)</sup>

#### 2) 五運

五運이란 木運, 火運, 土運, 金運, 水運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五運을 演繹하는 符號로서는 天干을 사용하고 있는데<sup>15)</sup>, 天干은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의 十個로서 十干이라 稱한다<sup>16)</sup>. 十干의 五行配屬은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이나 五運의 變化는 이와는 달리 甲己化土(甲;陽土, 己;陰土)하고, 乙庚化金(乙;陰金, 庚;陽金)하고, 丙辛化水(丙;陽水, 辛;陰水)하고, 丁壬化木(丁;陰木, 壬;陽木)하고, 戊癸化火(戊;陽火, 癸;陰火)한다<sup>17)</sup>. 이를 十干化運이라고 한다. 또한 十干의 陰陽配屬은 甲, 丙, 戊, 庚, 壬은 陽干에 屬하

10) 윤창열 醫哲學 대전, 대전대학교 원전외사학교실. 1998. p176

11) 김완희. 한의학원론. 서울. 성보사. 1982. p49, p52

12) 윤창열. 의철학. 대전. 대전대학교 원전외사학교실. 1998. p177

13) 한동석.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행림출판. 1985. p.93

14) 한동석. 上揭書. p. 112 - 114.

15) 윤창열. 의철학. 대전. 대전대학교 원전외사학교실. 1998. p177

16) 김완희. 한의학원론. 서울. 성보사. 1982. p47

17) 윤창열. 前揭書. p178

고, 乙, 丁, 己, 辛, 癸는 陰干에 屬<sup>18)</sup>한다.

五運은 太過, 不及 및 平氣가 있으니 太過한 한 해를 주관하는 運氣가 旺盛하여 有餘한 것으로 甲, 丙, 戊, 庚, 壬年은 모두 陽干의 運이 주관하는데 陽은 太過이므로 運氣太過가 되는 것<sup>19)</sup>이며, 太過之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氣運이 미리 오는 것<sup>20)</sup>을 말한다.

不及이란 한 해를 주관하는 運氣가 衰退하여 不足한 것으로 乙, 丁, 己, 辛, 癸年은 모두 陰干의 運이 주관하는데 陰은 不及이므로 運氣不及이 되는 것<sup>21)</sup>이며, 不及之年은 때가 이미 되었는데도 아직 제 기운이 오지 않는 것<sup>22)</sup>을 말한다.

平氣란 그 해의 운이 太過도 아니고 不及도 아닌 해<sup>23)</sup>를 말한다. 平氣가 發生하는 이유는 運과 運이 相合하는 경우이거나 해당년의 年運天干과 歲支方位의 五行속성을 相合시켰을때 같은 氣의 도움으로 平氣를 형성하는 경우와 해당년의 中運之氣과 司天之氣가 相合으로 太過한 中運之氣가 司天之氣의 억제를 받아 平氣를 형성하는 경우<sup>24)</sup> 등이다.

### 3) 六氣

六氣란 風, 寒, 暑, 濕, 燥, 火의 簡稱이다. 六氣中에서 暑氣와 火氣는 基本的으로 同類이나 그 作用과 역할이 다르므로 風, 寒, 暑, 濕, 燥, 火라 하지 않고 風, 寒, 濕, 燥, 君火, 相火라 부른다<sup>25)</sup>.

六氣는 三陰三陽을 위주로 十二地支와 결합하여 매년 기후의 일반변화와 특수변화를 설명하고 推算하며 主氣와 客氣로 나누며, 主氣로서는 常規를 밝히고 客氣로써 變化를 추측한다<sup>26)</sup>.

三陰三陽은 六氣가 변화한 것으로 風化厥陰, 熱

化少陰, 火化少陽, 濕化太陰, 燥化陽明, 寒化太陽이다. 그러므로 六氣가 本이 되고, 三陰三陽은 標가 된다<sup>27)</sup>.

六氣의 活用은 十二地支와 배합하여 이루어지는데, 十二地支란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를 말하는 것이며, 이들 중 子, 寅, 辰, 午, 申, 戌은 陽支이며, 丑, 卯, 巳, 未, 酉, 亥는 陰支이다<sup>28)</sup>.

#### ○ 主氣

主氣는 每年 各 季節 氣候의 常規變化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變化는 해마다 固定不變하므로 主氣라고 부른다. 그리고 主氣는 客氣와 달리 地에서 作用하는 五行之化氣이므로 地氣라고도 부른다.

主氣는 風木, 君火, 相火, 濕土, 燥金, 寒水의 六氣로 區分하되 春夏秋冬 二十四節氣에 分主하여 一年中의 서로 다른 變化를 나타낸다. 主氣는 初二三四五終氣의 六步로 나누며, 각각의 步는 60日 87.5刻의 기간이다. 主氣의 순서는 初氣는 厥陰風木, 二氣는 少陰君火, 三氣는 少陽相火, 四氣는 太陰濕土, 五氣는 陽明燥金, 終氣는 太陽寒水의 順으로 매년 固定不變한다<sup>29)</sup>.

#### ○ 客氣

客氣는 主와는 相對的인 말로 每年 氣候上의 異常變化를 말한다. 客氣는 한번 지나간 후 一定한 時間이 지나야만 다시 도래하는 것이 客과 相似하므로 客氣라고 하는 것이다. 主氣는 地氣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客氣는 이와 달리 天에서 作用하는 五行之化氣이므로 天氣라고 부른다<sup>30)</sup>.

客氣의 순서는 陰과 陽의 氣가 많고 적음에 따라 배열되므로 三陰三陽의 진행 순서로 되어있다. 一陰은 厥陰風木이고, 二陰은 少陰君火이고, 三陰은 太陰濕土이다. 一陽은 少陽相火이고, 二陽은 陽明燥金이고, 三陽은 太陽寒水이다.

그러므로 客氣의 순서는 厥陰風木 -> 少陰君火 ->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 太陽寒

18) 김완희. 한의학원론. 서울. 성보사. 1982. p47

19) 권의경. 오운육기학 해설. 서울. 법인문화사. 1996. p56

20) 권의경. 上揭書. p57.

21) 권의경. 上揭書. p56.

22) 권의경. 上揭書. p57.

23) 권의경. 上同.

24) 권의경. 上揭書. p.59 - 61.

25) 윤창열. 上揭書. p. 209.

26) 배병철. 基礎한의학. 서울. 성보사. 1997. p.164.

27) 권의경. 上揭書. p.84

28) 권의경. 上揭書. p.85 - 86.

29) 윤창열, 上揭書. p.228 - 229.

30) 윤창열. 上揭書. p.232.

水이며 각각의 客氣가 주관하는 시간은 60日 87.5刻이다. 매년 客氣의 추론방법은 해당 년의 十二支의 司天 在泉 間氣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해당 년의 司天之氣가 당해 客氣의 三氣가 되고 初氣는 在泉의 左間氣가 된다<sup>31)</sup>. 甲子年을 예로 본다면, 해당 년의 十二支는 子이고 子는 少陰君火이다. 그러므로 少陰君火가 司天之氣가 되며 客氣의 순서에 의해 少陰君火는 三氣가 되고 初之氣는 在泉의 左間인 太陽寒水가 初之氣가 된다.

## 2. 五運六氣의 本質과 限界性

五運六氣의 본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이는 天地의 變化를 파악하는 원리이다. 즉, 五運六氣學은 宇宙와 自然의 變化原理를 說明한 理論體系이다. “天地之精氣 化萬物之形”<sup>32)</sup>이라 하니 이는 天地의 精氣란 바로 五運과 六氣의 정미로운 기운이니 五運과 六氣가 萬物의 形體를 變化시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黃帝內經에서는 “在天爲氣하고 在地爲形하니 形氣相感而化生萬物矣니라”<sup>33)</sup>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寒暑燥濕風火는 天之陰陽也이니 三陰三陽이 上奉之하고, 木火土金水는 地之陰陽也요이니 生長化收藏하야 下應之이요.... 動靜相召하고 上下相臨하여 陰陽相錯而變由生也니라.”<sup>34)</sup>하여 寒暑燥濕風火의 六氣와 木火土金水의 五運이 相合하여 萬物을 化生하고 變化시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五運六氣는 萬物의 특성을 결정짓는 先天的 요소임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또한 後天的인 形體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五運과 六氣는 상호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運氣의 작용은 한 해의 대략적인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매달 매일 매시의 기후변화에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

의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당연히 運氣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원리가 五運六氣의 相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니 運氣學은 天地의 變化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인 것이다.

五常政大論<sup>35)</sup>을 보면, “木運이 不及한 해를 勝生이라 하는데 生氣가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못하므로 化氣가 휘날리고, 長氣가 자연히 정체되며, 收氣가 早期에 이르므로 찬비가 수시로 내리고 바람과 구름이 일고, 초목이 뒤늦게 무성하였다가 금방 시들어 떨어지며, 萬物의 결실이 빠르고 겹질과 육질이 충실하게 된다. 그 氣는 수렴하고 그 작용은 모아들이는 것이므로 인체에서 나타나는 변동은 收縮, 屈曲, 拘急, 弛緩으로 나타나고.... 그 臟는 肝이고 그 果類는 대추와 자두이며, 그 果實은 核과 겹질이고, 穀類는 稷과 벼이며, 그 맛은 신맛과 매운맛이고, 그 색은 청색과 백색이며, 그 가축은 개와 닭이고, 그 蟲類는 毛蟲과 介蟲이며....”<sup>36)</sup> 라고 설명되어져 있는데 黃帝內經에 언급된 五運六氣學의 相合에 따른 자연계의 변화현상을 궁구해 본다면, 이는 天地自然이 변화할 때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것이 동식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木運이 不及한 해가 되면 氣運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天地自然의 氣候變化는 어떻게 나타나고 草木이나 穀食, 家畜, 벌레들의 生長에 어떤 변화가 유발되며 이것에 비추어 人間에게도 어떠한 病證이 유발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五運六氣의 變化는 인간만에 국한되어 설명되어진 이론 체계가 아니고 자연계 전반에 미치는 변화를 언

31) 권의경. 上揭書. p.106 -108.

32) 허준. 東醫寶鑑 內景篇. 서울. 대성출판사. 1992. p.72.

33) 배병철.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성보사. 1994. p.527.

34) 배병철. 上揭書. p. 531.

35) 배병철. 황제내경 소문. 서울. 성보사. 1994. p.602 - 604.

36) 委和之紀, 是謂勝生, 生氣不政, 化氣乃揚, 長氣自平, 收令乃早, 涼雨時降, 風雲並興, 草木晚榮, 蒼乾溼落, 物秀而實, 膚肉內充. 其氣斂, 其用聚, 其動緩長拘緩, 其發驚駭, 其藏肝, 其果棗李, 其實核穀, 其穀稷稻, 其味酸辛, 其色白蒼, 其畜犬雞, 其蟲毛介,

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봄이 되면 天地의 運氣는 主運이 木이고 主氣가 厥陰風이다. 여기에 매년 변화는 客運과 客氣의 특성에 따라서 봄이라는 계절이 매년 동일한 형태의 氣候變化에 의하지 않고 조금씩 다른 기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동식물이 어떻게 다른 生理的 病理的 현상을 나타내 보이면서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人間만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봄이라는 季節의 특성이 고스란히 人間에게 미치고 이것이 모든 人間에게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五運六氣의 變化는 정확히 天地自然의 氣候變化에 치중된 원리인 것이며 이를 人間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人間만의 특성이 더불어 궁구되어야만 정확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黃帝內經에서 生物과 無生物을 구별하는 구절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神機者是 根於中이요, 氣立者是 根於外<sup>37)</sup>”라는 것이다. 黃帝內經 五常政大論에는 사물의 내부에 근원을 둔 것을 神機라하라고 神機가 빠져나가면 生化의 기능이 멈추고, 사물의 외부에 근원을 둔 것을 氣立이라 하는데 기운의 운행이 멈추면 生化 역시 斷絶된다<sup>38)</sup>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神機란 바로 인간이 “自發的으로 代謝를 行하니 이를 陰陽升降出入이라”<sup>39)</sup>고 파악할 수 있으니 이는 生命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生命을 지닌 存在는 變化의 原理가 바로 自身에게 있는 것이며, 生命을 가지지 않는 存在는 變化의 原理가 外部에 있는 것이다. 運氣學은 五運과 六氣의 變化가 人間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人間은 氣立의 상태인 것인양 錯覺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四象醫學의 出現으로 人間에게 自發的인 變化의 中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神機에 따른 變化를 궁구하게 된 것이다. 인간은 물질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生命을 지닌 존재이므로 인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變化의 측을 神機와 氣立이라는 양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韓醫學은 陰陽 五行 六氣의 측면에서 이러한 天地自然의 變化原則을 人間에 대한 일반적인 診斷과 治療原理로 설정하여 患者의 疾病의 원리를 궁구하여 왔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天地自然의 一般的인 變化原則을 말한 것이지, 人間 自體에 오롯이 적용되는 원칙을 다 말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人間이 비록 天地自然의 變化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 生命은 父母로부터 遺傳되는 것이며 이러한 遺傳에 있어서 個體의 特異性이 形成된다는 지극히 간명한 사실이 運氣學에서는 외면되어 있는 실정이다.

父母로부터 生命을 부여받은 아기는 父母를 닮게 되어 있다. 흑인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흑인이다. 백인아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생명현상 중에 지극히 명확한 원리 중에 하나이나 運氣學에서는 이를 五運六氣에 따른 氣運과 氣候등에 치중한 나머지 人間의 이러한 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五運六氣가 人間에게 적용될 때 유발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運氣學은 主體인 人間의 개념이 희박하고, 四象醫學은 客體인 運氣의 변화가 소홀하게 다루어진 원리라는 것이다.

## 2. 四象體質醫學

四象醫學은 19세기말 李濟馬<sup>40)</sup> 先生의 東醫壽世

37) 배병철. 今釋 黃帝內經 素問. 서울. 정보사. 1994. p.628.

38) 根於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根於外者 命曰氣立 氣止則化絕.

39) 윤길영.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정보사. 1983. p.27.

40) 李濟馬 ; 1838 - 1900年. 朝鮮의 醫家. 字는 務平, 號는 東武. 진해 및 고원현감을 역임하였다.(중략) 四象醫學은 종래의 음양오행의 哲學的 空論을 배척하

保元<sup>41)</sup>을 통해 발표된 體質醫學이다. 李濟馬 先生의 東醫壽世保元の 전반적인 흐름은 인간이 타고난 고유한 체질적 특성과 性情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疾病을 診斷하고 治療해야 할 뿐 아니라 飲食이나 養生에 이르기까지 體質을 分類하여 개개인의 體質에 맞게 調節해야 한다는 독특한 理論體系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四象醫學에서는 사람들의 체격과 체질, 臟腑의 虛實, 얼굴의 생김새, 성격, 藥에 대한 개체적인 반응상태, 임상적인 특성 등을 종합하여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으로 분류하면서 四象人에 따라 같은 病因이 작용해도 각기 다른 病症상이 나타나므로 치료를 개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2)</sup>

이는 기존의 陰陽 五行 六氣의 原理에 따라서 人體의 臟腑와 氣血의 虛實을 파악하여 질병을 파악하는 內經의 意味의 證候學的 原理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사람마다 각기 다른 四象體質에 따른 약물과 음식이 분류되고 이를 기준으로 인체의 여러 가지 생.병리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李濟馬의 기본적인 의학적인 원리는 4元 構造를 지니고 있으며 이 4元 구조는 周易의 四象에서 취상한 것이나 儒學的인 원리를 바탕으로 性情에 대한 4원 구조와 天地人物에 대한 4원 구조를 지닌 그의 철학적 의학적 기반은 이전에 볼 수 없는 독특한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五臟之心은 中央之太極也”<sup>43)</sup>라 하여 五臟과 人間의 중심은 心에 있으며 이는 物質의 측면에서의 心이 아니라 精氣神에 입각한 心性論에 그 이론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五運六氣를 중심으로 天地自然의 원리를

추구하여 이를 인체에 적용한 內經的 觀點과는 다른 각도에서 인간이 조명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李濟馬의 四象醫學이 인류 역사상 중대한 體質에 대한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일임에 분명하다. 또한 기존의 內經醫學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인간 자체의 원리를 파악한 것 역시 높이 평가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李濟馬 先生은 人間 自體의 原理에 치중한 나머지 天地自然의 原理 속에서 살아가는 人間에 대한 원리를 소홀하게 다루는 치명적 실수를 하고 말았다. 즉, 人間은 이미 天地 自然의 原理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存在이며 이를 떠나서는 生存할 수 없다는 것을 妄覺한 것 인지도 모른다.

이는 기존의 內經의 運氣學이 天地自然의 原理를 中心으로 人間을 파악함으로써 가졌던 人間 自體의 主體의 原理를 소홀하게 다룬 것과 마찬가지로 李濟馬 先生의 東醫壽世保元은 人間 中心의 原理로서 人間을 파악함으로써 天地 自然의 變化原理를 소홀하게 다룬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파악하여 이를 醫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內經醫學과 四象醫學의 장단점을 적용하여 天地人 相應의 본 모습을 궁구하여야 할 것이다.

#### 1) 四象醫學의 基本原理.

四象醫學은 인간이 선천적인 性情에 따라서 臟理의 大小가 나누어짐으로 인해 4가지 유형의 體質로 나타난다고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人稟臟理에 有四不同이니 肺大肝小者를 名曰 太陽人이오 肝大肺小者를 名曰 太陰人이오 脾大腎小者를 名曰 少陽人이오 腎大脾小者를 名曰 少陰人이니라.”<sup>44)</sup> 라고 제시하고 있다.

李濟馬 先生은 사람에게 이러한 四象臟理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四端論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太陽人은 哀性이 遠散而怒情이 促急하니 哀性이 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고 임상적인 방법에 따라 환자의 체질을 중심으로 치료방법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저서로는 東醫壽世保元 上下 2권과 格致藥가 있다.

41) 조선시대의 李濟馬가 1894년에 저술한 총 4권의 方書이다. 이 책에는 醫論 625條와 113方이 실려있다.

42) 전통의학연구소,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성보사, 2000, p.902.

4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9.

4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8.

이오, 怒情이 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하나니 太陽之臟局이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오. 少陽人은 怒性이 宏抱而哀情이 促急하니 怒性이 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이오 哀情이 促急則 氣激腎而腎益削하나니 少陽之臟局이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오, 太陰人은 喜性이 廣張而樂情이 促急하니 喜性이 廣張則氣注肝而肝益盛이오 樂情이 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하나니 太陰之臟局이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오. 少陰人은 樂性이 深確而喜情이 促急하니 樂性이 深確則氣注腎而腎益盛이오 喜情이 促急則氣 激脾而脾益削하나니 少陰之臟局이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니라.<sup>45)</sup>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람에게 四象體質이 나타나는 이유를 喜, 怒, 哀, 樂의 性情의 차이에 의해 각 臟의 氣運이 盛해지거나 削하게 되어서 大小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內經醫學에서 말하는 內臟의 生成原理와는 다른 견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즉, “東方生風하고 風生木하고 木生酸하고 酸生肝”<sup>46)</sup>이라는 황제내경에서 언급한 肝의 生成原理와는 확연히 다른 원리라는 것이다. 內經醫學에서 말하는 人體의 五臟의 生成은 五運과 六氣에 의해 人體의 五臟과 六腑가 생겨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東醫壽世保元의 四象醫學에서는 人間의 喜怒哀樂의 性情에 따라서 內臟의 特性이 나누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이유는 內經의 運氣學이 天地自然의 變化法則을 中心으로 人間의 生成을 설명하는 관점인 것에 비하여 東醫壽世保元의 四象醫學은 철저히 人間 中心에 입각해서 人間 自體의 生成原理를 窮究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마 선생의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인식방법은 독특한 4元 構造를 가지고 있는데 東醫壽世保元의 이러한 4元 構造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47)</sup>

天機	天時 耳	世會 目	人倫 鼻	地方 口
人事	事務 肺	交友 脾	黨與 肝	居處 腎
	籌策 頷	經綸 臆	行檢 臍	度量 腹
行(命)	識見 頭	威儀 肩	才幹 腰	方略 腎

李濟馬 先生의 논리는 철저히 4元의 형식을 지키고 있으며 이는 조선사상사의 주제가 된 孟學의 四端에서 유래된 것이나 周易의 四象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며 다만 그 표현을 빌리는 것에 불과하다.<sup>48)</sup>

李濟馬 先生의 논리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格致 藁에 기록된 다음 구절을 살펴 보면 李濟馬 선생이 독특한 사유체계를 가지고 사상의학의 이론적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易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心也.’ 兩儀心身也 四象事心身物也 八卦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sup>49)</sup>.”

이제마 선생은 太極을 心으로 설정하여 모든 이론적인 근본으로 삼았으며, 周易의 兩儀는 陰陽이라는 측면으로 풀이되지만 동무에게는 心身의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四象醫學의 이론적인 근거는 心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人體의 內臟도 心에서 비롯되는 喜怒哀樂에 의한 性情의 차이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東武는 기존의 易學의인 原理를 나뉘대로 해석하여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이나 四端論에서 보여지는 다소 抽象的이고 觀念的으로 보여질 수 있는 4元 構造가 วิทยาศาสตร์의 측면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기존의 인식체계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고자하는 東武의 자구책이었을 것이며 또한 지극히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5) 李濟馬, 上揭書, p.32 - 33.

46) 이경우,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4. 서울, 여강출판사, 1998, p.70.

47) 홍순용, 四象診療保元. 서울, 서원당, 1991, p.72.

48) 한영목, 道을김용욱선생의 동의수세보원 강론. 경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p.21.

49) 한영목, 上揭書, p.110.



#### 4. 四象醫學의 本質과 限界性

四象醫學의 本質은 人間에게 體質의 特性이 존재한다는 것을 醫學的으로 發展시킨 것이다. 수천년 동안 한의학이 많은 이론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五運六氣에 따른 천지자연의 법칙을 일반화해서 인간에게 적용하던 것을 李濟馬先生에 이르러 인간 자체에 고유한 체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질병이 각기 다르게 유발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도 역시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여야 하며, 체질에 따라 喜怒哀樂의 性情을 조절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이를 李濟馬先生의 醫論에 따라서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체질에 대한 발견은 인간의 유구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한 사건이며 기존의 의학 체계가 갖는 한계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의미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四象體質의 발견에 대해 李濟馬先生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의학이 전해 온 지 수 천년 후에 나서 옛사람들이 전해온 저술을 통하여 우연히 四象人의 臟腑생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종래의 의학과 확연히 다르므로 먼저 그 뿌리를 찾은 연후에 가지와 잎사귀를 취할 것이다.”<sup>50)</sup>

또한, 東醫壽世保元의 四象人 辨證論에서 李濟馬先生은 “靈樞 중에 태소음양 五行人論이 있는데 대략 외형만 말하고 오장이치는 말하지 않았다. 대개 태소음양인을 벌써 옛적에도 발명하였으나 정밀하게 다 연구하지 못하였던 것이다.”<sup>51)</sup>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마 선생이 사상의학을 알게 된 것과 이를 설명해 가는 과정을 역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마 선생은 원래 무관출신이고 유학자인 관계로 처음부터 의학에 정통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마 선생의 표현대로 “우연히 사상의학의 장부이치를 얻었던 것(偶得四象人臟腑性理<sup>52)</sup>)”이다. 이제마 선생은 인간에게 고유한 체질이 네

가지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한의학은 陰陽 五行 六氣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네 가지의 장부구조와 사상체질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格致叢에서 보여지는 그의 세계관, 즉 “太極心也. 兩儀心身也. 四象事心身物也”<sup>53)</sup>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四象의 구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라 보여진다. 李濟馬先生의 주제는 바로 心인 것이다. “五臟之心은 中央之太極也오 五臟之肺脾肝腎은 四維之四象也.”<sup>54)</sup>이라고 그가 四端論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李濟馬先生은 儒學的인 心學과 비록 그 이름을 빌린 것이라 하나 周易의 四象을 연계하여 四象體質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는 李濟馬先生이 철저하게 人間 中心에서 四象醫學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李濟馬先生의 四象醫學에서는 기존의 음양 오행 육기를 바탕으로 한 내경의학의 이론은 중요하게 연구되지 못하였던 것이라 판단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분명 개체의 특이성을 가지는 체질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체질에 대한 이제마 선생의 업적은 높이 평가할 일이나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에서 드러나는 한계성도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충분히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인간 자체에 중심을 두어 설명함으로써 天地自然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 변화와 風, 寒, 暑, 濕, 燥, 火의 기후변화에 따른 인간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소홀하게 다룸으로서 臟腑의 大小가 생겨나는 이치는 喜怒哀樂의 性情에 따른 원리로 설정하였지만 喜怒哀樂의 性情은 人間에게 있어 이미 後天的인 精神作用에 따른 變化임을 상기해 볼 때 이제마 선생의 醫論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즉, 喜怒哀樂이라는 性情은 인간의 인식이 이루

50) 홍순용. 四象診療保元. 서울, 서원당. 1991. p.57.

51) 李濟馬. 上揭書. p.313.

52) 李濟馬. 上揭書. p.68.

53) 한영목. 上揭書. p.110.

54) 이제마. 上揭書. p.29.

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느끼고 알 수 있는 后天的 변화인데 이것이 어떻게 先天적인 장부의 대소를 결정할 수 있느냐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臟腑의 분류에서 心을 太極이라하여 제외시킴으로서 기존의 內經醫學에서 보여지는 五臟 패턴과의 혼돈된 醫論을 설정함으로서 많은 후대의 한의사들이 四象醫學이 內經醫學과 다른 체계인 것으로 비쳐지게 된 것이다. 물론, 기존의 內經醫學도 限界性を 지닌 이론체계이며, 四象醫學 역시 限界性を 지닌 이론체계임에 분명하다. 이제 內經醫學과 四象醫學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서 새로운 한의학의 발전된 이론을 모색하는 바탕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5. 天地人相應에 따른 五運六氣와 四象醫學의 原理

五運六氣學을 중심으로 인간을 파악하는 것은 天地의 氣運을 직접적으로 인체에 대입하여 運氣相合에 따른 기운의 특성으로 인간의 체질적 특성이나 기타 다양한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자하는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비해 四象醫學은 인간 자체를 중심으로 인간의 心을 太極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喜怒哀樂의性情에 따른 臟腑의 大小로서 체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運氣學은 天地를, 四象醫學은 人間을 기준으로 체질적 특성을 파악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인간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한다면 天地人相應의 원리에 입각해서 五運六氣와 四象醫學을 재해석하여 이를 정형화된 체질이론으로 승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人間은 天地自然의 變化 그 자체일 수도 없으며, 또한 天地自然의 運氣의 變化에 예외적인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間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을 궁구하여야 한다면 五運六氣를 중심으로 天地의 變化를 窮究하고 난 다음에 人間 개개인의 특성을 四象醫學을 바탕으로 窮究하여야만 비로소 天地人에 相應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五運六氣學의 運氣相合에 따른 체질분류를 구분

한다면, 대략적인 體質은 600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는 60甲子에 따른 五運六氣의 특성과 각 해당년에 따른 運氣相合이 10 개의 특성으로 구분되므로 600가지 형태의 체질적 특성이 나오게 된다. 이를 단순화한다하더라도 60갑자에 따른 60가지 유형의 체질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욱 간명하게 오행에 따라서 5가지 유형의 체질을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內經의 五態人論은 체질적 특성을 5가지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四象醫學으로 인간을 파악한다면 인간은 크게 4가지 특성으로 분류될 뿐이다. 四象醫學적 특성으로 人間의 모든 다양한 특성을 궁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즉, 같은 太陰人이라하더라도 그 病證이나 나타나는 形象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처방의 활용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東醫壽世保元에 따르면 表裡寒熱이라는 측면으로 이를 대략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체를 다 말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李濟馬 先生의 辨證방법으로 體質을 구별한 것을 보면, 少陰人 腎受熱表熱病과 少陰人 胃受寒裏寒病, 少陽人 脾受寒表寒病과 少陽人 胃受熱裏熱病,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과 太陰人 肝受熱裏熱病, 太陽人 外感腰脊病과 太陽人 內觸小腸病<sup>55)</sup>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李濟馬 先生의 人間의 파악방법은 臟腑의 大小와 表裏寒熱로 나누어져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東醫壽世保元의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인식방법은 인간 자체를 궁구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天地自然의 氣運을 더불어 논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노출되는 약점을 가지게 된다. 이는 內經的 辨證方法의 하나인 八綱에 대한 원리와 비교해 본다면, 表裏, 寒熱뿐만 아니라 虛實과 陰陽등이 더불어 고찰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여기에 다시 더욱 소상하게는 燥濕의 원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臟腑의 大小에 따른 唯物的 人間의 특성을 唯心的 喜怒哀樂의 차원으로 설명함으로서 체질적인 특성과 심성적인 특성을 상호 연관하여 인간의

55) 李濟馬, 上揭書.

특성을 규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人間의 本性이 마음의 편벽에서 비롯된다는 독특한 이론 체계도 東醫壽世保元의 인간 궁구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人間은 精氣神水血을 根本으로 하여 五臟六腑를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各組織과 經絡을 통해 그 生命現象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며 外部的인 六氣의 變化와 飲食, 勞動, 七情 등의 요인에 의해 疾病을 형성하는 것이다. 四象體質적 原理의 약점은 인간의 外部的인 요인에 대한 變化원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는 天地人相應의 人間生成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나타나는 약점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을 규명하는데 인간만으로 인간을 설명한다는 한계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모든 만물이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는 우주의 기본적인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五運六氣學은 이러한 상호 연관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고 있으니 이를 天地人相應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이라는 전체적인 존재에 대한 연구는 우선 運氣를 중심으로 타고난 先天的인 대자연의 運氣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사상의학적 특성을 궁구하여 이를 하나의 원리로 풀어내는 것이 보다 정당하고 학리적인 체질의 연구라고 생각된다.

한의학의 기본적인 우주관인 天地人相應의 원리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본다면, 天地는 自然의 變化이며 이는 五運六氣에서 언급된 특성에 의해 가장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人間은 인간만의 고유한 生命體의인 特性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體質의인 原理로 궁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地 自體의 變化로 人間을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天地自然의 法則을 벗어난 人間의 모습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 진정한 天地人相應의 原理로서 인간을 궁구하여야 한다면 이는 인간의 外部的인 條件인 五運六氣의 變化를 궁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인체 자체의 원리인 體質의 特性과 自發的인 생명현상을 동시에 궁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학적인 이론체계를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에 위한 原理를 周易과 運氣學에 입각해서 궁

구해 본다면 周易의 構造는 陰陽 四象, 八卦와 64卦로 宇宙의 原理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運氣學에서는 陰陽을 바탕으로 五行 六氣를 조합하여 60甲子로서 宇宙의 순환을 구성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둘 다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나 나타나는 현상에 구별은 64와 6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현재 한의학에 내재하는 內經醫學과 四象醫學의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宇宙의 原理가 둘일 수 없다면 이러한 理論的인 차이점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찰할 필요가 있으리라 보인다. 周易이나 運氣學은 그 바탕을 陰陽으로 설정하고 있음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적 원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陰陽의 變化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陰陽의 本體의 變化는 四象으로 分化된다. 이것은 周易의 체계로서 그 틀을 잡아야 한다. 즉, 周易의 原理는 陰陽의 本質의 變化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運氣學은 陰陽을 바탕으로 그 用의 變化를 위주로 한 것이라 보인다. 즉, 運氣學은 本質의 時間的인 變化가 爲主로 설명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周易은 本體的인 變化가 爲主로 설명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周易은 體의 變化이고, 運氣는 用의 變化이다.

이를 人體에 적용하여 보면 四象醫學은 人體의 本質的인 氣運인 體質의 나눔을 말하는 것이고 運氣學은 이러한 人間의 本質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變化를 말하는 것이다.

고로 人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四象體質을 바탕으로 運氣의 變化를 궁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陰陽에 대한 二分法的인 확대가 周易의 原理이고 陰陽의 運動에 따른 陰陽中の 原理로서 五行과 六氣를 산정할 수 있으니 이것이 運氣學이다. 周易은 陰陽 四象 八卦 六十四卦로 전개되고 內經은 陰陽 三才 五行 六氣 十干 十二支 二十四節候 六十甲子로 전개된다.

周易은 4象이 變化의 기본이고 內經은 3, 5가 變化의 기본이다. 四象醫學은 周易의 本體개념이다. 內經醫學은 運氣學을 기본으로 한 變化의 원

리이다. 곧, 周易은 本體이고 運氣는 變化이다. 그러므로 人間의 體用은 四象과 運氣으로 파악할 수 있다. 體는 四象이요, 用은 內經인 것이다. 人間은 四象을 바탕으로 五行의 變化를 한다. 四象의 象은 조짐이고, 五行의 行은 運動, 變化를 나타내므로 人間은 네가지 체질적 조짐을 가진 다섯 가지 변화를 가지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더욱 간명하게 말한다면 天地는 運氣의 原理이고, 人間은 四象의 原理를 근본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天地人이 동시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天地人 相應의 原理의 핵심인 것이다.

인간의 體質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동안 한 개체가 자연계의 運氣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여 이를 유전적 요인에 의해 생명의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였다면, 人間의 體質 自體가 하나의 氣運의 상태인 것이고 이는 先天的인 體質要因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近視의인 차원에서 體質이란 이미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先天的 氣運의 양상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자연계의 기후변화는 한 인간에게는 後天的인 要因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초의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자연의 기후에 영향을 받아 생존하여 형성된 人間이라는 先天的 體質이라는 것이 현재에 있어 人間에게는 父母로부터 부여받은 先天的인 體質이 되고, 주어진 환경에 따른 氣候變化는 後天的인 요인이 되는 이론적 난해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人間의 生成과 生存에 따른 體用的 다양한 변화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체질적 특성을 논할 때는 四象體質은 先天的인 요인이 되고, 自然界의 氣候變化인 運氣學은 後天的 要因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體質은 人間 本體의 構造에 대한 문제이고, 運氣는 이러한 人間이 어떻게 變化하느냐를 파악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보다 더 열성적인 연구가 한의 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한의학계내의 각각의 학파가 난립함으로써 천지와 인간의 통합적인 이론체계를 모색하기보다는 각기 자기의 고유한 색깔을 중시함으로써 한의학의 언어의 정명이나 원리에 있어 마치 상호 이질적인 것으로 판단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五運六氣와 四象醫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天地人의 원리를 정연히 설명할 수 있는 성현들의 고귀한 학문적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天地와 人間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이 통탄할 일이라 생각되어 현명한 이들의 연구에 기대를 걸어본다.

### III. 結 論

1. 五運六氣學은 黃帝內經 素問의 運氣篇에 그 이론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五運六氣學은 木火土金水の 五運과 風寒暑濕燥火의 六氣로서 한의학의 전반에 이론적인 바탕이 되고 있으며 傷寒論이나 金元四大家의 醫論 뿐만 아니라 東醫寶鑑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핵심적인 원리로 응용되고 있다. 五運六氣 學說 만을 이용해서 醫學의인 이론을 형성한 분파로는 조선시대에 尹東里 先生의 草窗訣, 일제시대에 趙元熙 선생의 五運六氣醫學寶鑑 등이 있다.

2. 運氣學의 한계성은 天地自然의 普遍的 變化原理를 人間에게 一般化하여 適用함으로써 人間 自體의 體質의 特性이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이다.

3. 四象醫學은 19세기말 李濟馬 先生의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발표된 독창적인 體質醫學이다. 李濟馬 先生의 東醫壽世保元의 전반적인 흐름은 인간이 타고난 고유한 체질적 특성과 性情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疾病을 診斷하고 治療해야 할 뿐만 아니라 飲食이나 養生에 이르기까지 體質을 分類하여 개개인의 體質에 맞게 調節해야 한다는 독특한 理論體系를 지니고 있다.

4. 기존의 內經의 運氣學이 天地自然의 原理를 中心으로 人間을 파악함으로써 가졌던 人間 自體의 主體的 原理를 소홀하게 다루게 되는 한계성을 가지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李濟馬 先生의 東醫壽

世保元은 人間 中心의 原理로써 人間을 파악함으로써 天地 自然의 變化原理를 소홀하게 다루게 되었다. 즉, 四象醫學의 문제점은 人間 自體의 特性인 體質을 중요시함으로써 天地自然의 變化原理가 소홀하게 다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5. 한 個人은 그 父母로부터 遺傳的 特性을 지닌 生命을 부여받으며, 人間이 生命을 유지하는 근원은 天地自然에서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人間의 전체적인 本質을 궁구하기 위해서는 天地萬物의 生成과 變化原理인 五運六氣와 生命을 지닌 人間自體의 體質的 特性이라는 두 가지 원리로써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다. 즉, 五運六氣는 天地自然의 變化原理이고, 四象醫學은 人間自體의 變化原理를 말한 것이므로 이를 동시에 구명하는 것이 天地人 相應에 따른 人間의 온전한 정의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파악하여 이를 醫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內經醫學과 四象醫學의 장단점을 적용하여 天地人 相應의 본 모습을 궁구하여야 할 것이다.

6. 五運六氣學은 天地의 原理를 궁구한 이론체계이며, 四象醫學은 人間을 爲主로 人間을 궁구한 體質醫學이므로 天地人 相應의 原理에 따라서 人間을 궁구해야 한다면 五運六氣로서 天地의 상태를 파악하고, 四象醫學으로서 人間 自體의 特性을 파악하여 이를 相互 융화하여야만 명확한 인간의 모습이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地人 相應에 따른 韓醫學의 基本原理는 天地自然의 原理를 五運六氣學에서, 人間의 原理를 四象醫學에서 연구하여 이를 종합한 天地人 原理를 韓醫學에 적용하여야 한다.

7. 五運六氣와 四象醫學의 人間에 대한 定意는 향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參 考 文 獻

1. 배병철, 今釋黃帝內經 素問. 서울. 성보사. 1994.  
2. 尹暢烈, 醫哲學, 대전, 대전대학교원전의학사학

교실, 1997.  
3. 김완희, 漢醫學原論. 서울. 성보사, 1982  
4. 陳無擇, 吳鶴堂評註 陳無擇三因方. 중국. 台聯國風出版社  
5. 權依經, 오운육기학해설. 서울. 범인문화사. 1996.  
6. 欽定四庫全書 普濟方. 서울. 대성출판사. 1995  
7. 尹東里, 草窓訣. 청구한의학회. 1980  
8. 趙元熙, 五運六氣醫學寶鑑. 남해. 남선약업주식회사. 1938.  
9. 白南喆, 五運六氣學. 서울. 한림의학사. 1979.  
10. 金子齊, 金莊善 편저. 五運六氣治病藥法. 서울. 서울명문당. 1972  
11. 老佛, 運氣演繹方藥篇. 서울. 계축문화사. 1978  
12. 金成浩, 朴興浦 편저. 陰陽五行通變處方. 서울. 남산당. 1993  
13. 홍순용, 四象診療保元. 서울. 서원당. 1991.  
14. 한동석,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행림출판. 1985.  
1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여강출판사. 1992.  
16. 楊力, 中醫運氣學. 서울. 범인문화사. 2000.  
17. 배병철, 基礎韓醫學. 서울. 성보사. 1997.  
18. 許浚, 東醫寶鑑 內景篇. 서울. 대성출판사. 1992.  
19. 전통의학연구소, 東洋學大辭典. 서울. 성보사. 2000.  
20. 이경우, 編注譯解 黃帝內經 素問 4. 서울. 여강출판사. 1998.  
21. 한영목, 도올 김용옥 선생의 東醫壽世保元 講論. 경주.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22.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성보사. 1983.